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생태사상에 의한 생태교육연구

손 성 수

협성대학교

〈요 약〉

생태계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생태교육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와 생태교육이 접목될 때 보다 효율적인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한 창조영성적 사상의 원리는 생태적 사고의 전통이 될 뿐 아니라 생태교육의 좋은 실마리를 주고 있다.

이 글은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오늘날의 생태교육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사상을 집중연구하면서 그의 생태사상을 창조영성사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매튜 폭스의 공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폭스가 편집하고 분석한 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에크하르트의 생태사상은 네 가지 길로 설명된다. 첫째 길은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이다. 여기에서 피조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고귀한 존재이며, 신적인 특성이 있음을 말한다. 둘째 길은 버리고 그대로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기이다. 이 길에서 내적 방법 즉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길이 빛의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긍정의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숨어 있으며, 캄캄한 무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부정의 길이다. 셋째 길은 돌파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기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깨뜨림의 돌파가 있을 후 창조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넷째 길은 자비와 사회정의로 하나님을 경험하기이다. 그의 목표는 관상이 아니라 피조물을 자비로 대하고, 약한 자에게 정의로 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사상의 원리는 모든 피조물을 환대하는 교육,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육, 명상적 예술을 통한 생태체험교육, 리고 생명존중과 생태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등으로 연결되어 나타내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교육의 원리는 실제로 적용되는 것도 있으며, 앞으로 더 연구하여 적용될 여지가 많은 것이라 사료된다.

핵심 주제어: 생태위기, 생태교육, 창조영성, 초탈, 돌파, 자비

I. 들어가는 말

오늘날은 어떤 위기보다도 근원적 위기인 생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학자나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의 문제점을 알아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¹⁾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제는 환경교육이나 환경윤리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태교육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²⁾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와 생태교육의 접목은 필요하다고 하겠다.³⁾

최근에는 생태사상을 종교적 전통에서 찾고 있다. 그 중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신비주의자로, 행정가로, 학자, 그리고 설교자로 명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실천적 성격이 강하여 말년에는 교권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하기 했으나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특히 그의 창조영성사상은 생태학자인 매튜 폭스(Matthew Fox)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면서 한층 부각되고 있다.⁴⁾ 폭스는 에크하르트에게서 발견되는 창조영성사상은 그간의 기독교계의 주류인 타락/구원중심사상이 생태중심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데 난점이 있으며, 잃어버린 창조영성사상이 그 세계관과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창조영성사상은 생태학적 사고와 더불어 생태학적 윤리와 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실제로 교육의 방향은 전통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전통과 사상의 중심에는 에크하르트가 자리 잡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 글에서는 에크하르트의 창조영성사상에 나타난 원리를 생태교육에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그의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의 주요 사상을 폭스가 분류한 방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이 어떻게 생태교육의 근간을 이루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말한 생태원리가 오늘날의 생태교육의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지만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송명규는 생태위기의 근원을 말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즉 중세기독교사상의 인간중심적 사고, 고대와 중세의 철학의 자연에 대한 태도, 인본주의, 16세기 이후의 과학혁명, 그리고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무한정의 시장경제구조라고 설명한다. 송명규, 『현대생태사상의 이해』, (서울: 따님, 2008), 20-26쪽.

2) 예철해, “불교생태학의 주요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생태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2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52쪽.

3) Roger S. Gottlieb, edited,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n and Ec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6-8.

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은 다음과 같다: Matthew Fox, *Passion for Creation: The Earth-Honoring Spirituality of Meister Eckhart*, 김순현 옮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분도출판사, 2006). Matthew Fox, *Breakthrough : Meister Eckhart's Creation Spirituality* (New York: Doubleday, 1980).

II. 에크하르트의 사상적 배경

13세기 중세 독일의 신비사상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당대에 종교지도자, 대학교수, 설교가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사상적으로 깊은 발자취를 남겨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⁵⁾ 그러나 그의 생애는 대체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⁶⁾ 그는 1260년경 튀링겐지방의 호호하임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진다. 이때는 유럽에 스콜라철학이 성행하고 대학이 설립되던 시기였다. 그는 15세부터 도미니크수도원에 들어가 사제 공부를 한 후 스콜라철학의 대가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가 세운 학교에서 학문을 계속했다. 그리고 1302년 파리의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가르친 후 파리에서 수여한 학위를 받았다. 이후로 그는 마이스터로(Meister Eckhart)로 불렸다. 1303년 삭소니 지방의 도미니크 수도회의 관구장이 되고, 1307년에는 주교가 되어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 때 저술한 책이 『신적 위로의 책』이다. 그 후 파리에 머물면서 『삼부작』을 기술한 후 1313년부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설교자겸 수도원장으로 활동했다. 60세 되던 해인 1320에는 콜로뉴 대학의 교수직을 맡아 몇 년간 활동하였지만 무지한 사람들을 계몽한다는 죄목으로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논쟁을 벌이다가 1329년경에 생을 마쳤다.

당시 신비주의자로,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후대에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의 사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가 살던 시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⁷⁾ 우선은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빈곤층이 많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신비주의운동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지도층의 타락이다. 기사계급과 성직자 그리고 황제들의 타락이 사회의 안정을 흔들었고, 스콜라철학의 쇠퇴 그리고 라틴어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하던 시대였다. 다음으로는 급진적인 운동이 태동한 시기였다. 사회혼란으로 인한 현상으로 많은 사람이 베긴회 등에 참여하였다. 베긴회는 에크하르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평신도 여성 운동으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성운동을 하였다.⁸⁾ 마지막으로 종말의식의 팽배였다. 사회가 혼란하고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에크하르트는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고

5) 오늘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기 바람; Gerhard Wehr, *Meister Eckhart*, 이부현 옮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서울: 안티쿠스, 2009), 227-231쪽.

6) 정달용은 그의 생애를 크게 4시기로 나누어 기술한다. 제1기는 수도원장, 제1차 파리대학 교수, 관구장 시기이고, 제2기는 2차 파리대학교수시기, 제3기는 스트라스버그 시기, 그리고 마지막은 쾰른 시기로 잡고 있다. 정달용, 『중세독일 신비사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7), 59-98쪽.

7) Matthew Fox,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34-43쪽.

8) 김희성,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성 사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8), 51-52쪽.

취한 인물이 되었다. 이에 대해 라이너 쉬르만(Reiner Schürmann)은 다음과 같이 에크하르트를 소개한다.

설교는 에크하르트가 선택한 문학 장르이다. 그가 설교자로 살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그의 설교는 우리의 자유를 부추겨, 기존의 존재 내지는 피조물의 무에서 도래할 존재 내지는 무에 이르는 길을 내라고 촉구한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 자체에서 장차 나타날 존재를 만났다.⁹⁾

그는 신학자이면서 신비주의자이며 설교자로 이름을 알린 것은 그만큼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상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는 어거스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상을 창출한 학자이었다. 매튜 폭스는 에크하르트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5가지를 들고 있으나,¹⁰⁾ 여기에서는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서와 유대교 사상이다. 그가 강조한 창조의 신학의 원천은 성서이었다. 그가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를 넘어선 것은 성서를 관상의 관점이 아니라 자비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그가 설교자로서 명성을 가진 것은 그만큼 성서에 기초한 사상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성서를 인용하면서 성서의 본문을 살피고, 신학의 주제들을 성서에서 도출하고 있으며, 그의 설교방법은 아퀴나스 등과는 다른 방법 즉 성서의 구절을 선정하고, 구절들의 상호관계를 살피면서 숙고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후대의 성서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구약의 성서가운데 그의 사상에 가장 많이 준 것은 지혜문학서와 예언서이며, 신약의 성서에서는 바울과 요한의 신학을 담고 있는 성서들이었다. 성서에 못지않게 영향을 준 것은 유대교의 하시디즘 등 유대전통사상이었다. 그중 '영혼의 불꽃' 등의 사상을 알게 한 이스라엘리(Issac Ben Solomon Israeli) 등의 영향을 이어 받았다.¹¹⁾

둘째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도미니크 영성운동이다. 에크하르트는 생애 줄곧 도미니크와 관련을 맺고 살았을 정도로 도미니크수도회의 영향은 크다. 이 수도회의 특징은 종교의 내부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도시생활에 깊이 참여하는 생활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였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의 신플라톤주의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중심의 사상을 펼쳤다. 두 사람은 그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가르침을 받아 사상의 깊이를 더해갔다. 에크하르트는 아퀴나스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 여성의 평등과 존엄성, 영육의 조화, 피조물이 가지는 근본적 선, 의분의 역할, 인간 본성의 잠재력개발, 존재의 거룩성, 신비주의와 예언자 정신의 조화 등의 사상들을 세워 나가게 되었다.

9) 매튜 폭스, 앞의 책, 43쪽에서 재인용.

10) 위의 책, 51-74쪽.

11) Bernard McGinn, *Meist Eckhart: Teacher and Preacher* (N.Y.: Paulist Press, 1986), p.17.

그러나 둘 사이에는 소명과 생활방식에는 차이를 드러내었다. 아퀴나스가 스콜라철학에 근거한 학문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초점을 둔 반면 에크하르트는 학자가 아닌 설교자로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였다. 그는 스콜라철학의 딱딱함을 벗어나서 시적이고 역설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하여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었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면서 설교하면서 설교한 대로 살았다. 또한 아퀴나스도 창조영성을 말하였지만 에크하르트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연을 은총으로 불렀다. 그리고 만유재신론, 인간의 신화, 무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같은 주제에 있어서 아퀴나스보다 훨씬 깊은 사상을 보였다. 그는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서신학과 연결하여 새로운 사상을 전개하였다.¹²⁾

셋째는 켈트의 신비주의 사상과 동방 영성이다. 그는 켈트인의 전통에서 창조영성의 전통을 발견했다. 켈트인은 주로 거주한 지역은 독일 남서부와 스트라스부르그 지역이다. 이곳은 에크하르트가 활동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자연에 깃들여있는 신성을 숭배했다. 에크하르트는 신이 산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대지 내부에 거하는 신들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대지와 친밀하고 대지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지와 동물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 그들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금욕주의를 배격하고 예술을 장려하였다. 그래서 시인이거나 화가, 음악가, 건축가 등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연중심의 영성을 추구한 것을 볼 수 있다.

켈트인은 여신이나 모성애 등 여성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에크하르트가 낚음과 다산의 영성을 말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정의는 낚음과 다산의 영성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창조자, 예술가는 정의를 구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켈트의 신비주의 사상은 성 프랜시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여,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헌신, 가난에 대한 강조, 자연에 대한 사랑 등은 이러한 영향의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위-디오니시우스를 번역한 요한네스 스코투스도 켈트출신이다. 그는 창조성에 대해 4가지를 말하였다. 창조성은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피조물은 신의 현현이며, 하나님은 무이며, 원죄보다 신화를 더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켈트는 서방영성보다 동방영성에 더 가깝다. 에크하르트가 부정의 길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켈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긴회(Beguine movement)의 영향이다. 베긴회는 여자 수도단체로서 엄격한 수도원 생활대신 신비적 묵상을 하면서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린이교육이나 병자 간호 등의 활동하던 자들의 단체이다. 에크하르트는 설교가로서 네덜란드나 보헤

12) Matthew Fox, *Breakthrough*, p.31. 폴 킬리히는 이를 철학과 종교가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I. C. Henerr,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Christlichen Denkens*, 송기득 역, 『그리스도교사상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58쪽.

미야 지역을 순회하거나 그리고 라인강 유역에서 설교하면서 가장 왕성한 활동하면서 베긴회와 접촉을 하였다. 그는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의 성숙은 대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에크하르트가 교권반대를 한 것은 베긴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결국 에크하르트와 베긴회가 같이 교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베긴회는 에크하르트 활동 이전부터 크게 신장하였다. 교권의 타락과 남성인구의 급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도울 필요성이 대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단체의 회원은 수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대개는 가난한 삶을 살아서 도미니크수도회와 생활방식이 거의 같았다. 이런 관계로 에크하르트는 베긴회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Ⅲ. 에크하르트의 생태사상

에크하르트에게서 창조영성의 단초를 발견한 매튜 폭스는 그를 “창조 중심 영성적이며 가장 성서적이며, 가장 예언자적이며, 가장 예수 그리스도적인 사상가”¹³⁾라고 평가한다. 매튜 폭스는 그의 창조영성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설교를 엮은 책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Passion for Creation*)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그가 이미 발표한 논문¹⁴⁾에서 말한 대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창조영성을 네 가지 길로 분류하여 그의 설교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길 :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둘째 길 : 버리고 그대로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기

셋째 길 : 돌과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기

넷째 길 : 자비와 사회정의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1. 첫째 길: 창조계로 나감

하나님에게 향하는 영성의 첫 번째 여정은 창조계로 나가는 길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창조계를 중시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즉 창조는 은총이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선하심과 아름

13) Matthew Fox,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25쪽.

14) Matthew Fox, 이민재 옮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창조영성,” 『생태신학강의』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6), 289-327쪽.

다움을 창조계에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말한다. 이러한 창조계에 대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폭스는 3가지의 명제로 설명하고 있다. 존재는 하나님이다. 창조계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신성의 핵, 토양, 물줄기, 원천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내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게 그런 물음을 던질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밖으로 흘러 나왔을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크하르트 형제여, 그대는 언제 집 밖으로 나왔는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물음을 던진 이유는, 내가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관해 말합니다.¹⁵⁾

그가 말한 대로 어떻게 피조물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창조는 “하나님이 그 본질과 덕목과 능력에 있어서 창조계 안에 계시며, ...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발자국이다”라는 점에 주목한다. 폭스는 이러한 점은 그가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려준다고 평가한다.¹⁶⁾

그는 ‘존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아퀴나스의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말을 도치시켜서 존재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자 한 표현이다. 즉 존재는 하나님께 고유한 속성이므로 피조된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존재가 신적 현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구약성서 출애굽기 3장 3절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있음(존재)이며, 피조물 모두는 이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창조의 행위는 ‘없음’으로부터 ‘있음’의 부여이다. 또한 이 같은 있음의 부여와 유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창조는 멈추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존재성은 신성하다고 본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말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예를 들어 벌꿀의 달콤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다. 그에게 있어서 존재의 모든 것은 모두 신성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존재를 갈망하지 못할 만큼 하찮은 미물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송충이조차도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나무줄기를 타고 높은 곳으로 기어오릅니다. 이토록 존재는 고귀합니다.¹⁷⁾

15) Matthew Fox, 앞의 책, 123쪽.

16) Matthew Fox, 앞의 글, 290쪽.

17) Matthew Fox, 앞의 책, 134쪽.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 가지는 기쁨을 말한다. 그는 하나님이 가지는 기쁨을 푸른 초원에 풀어놓은 말의 기쁨과 활기에 비유한다. 말이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피조물 속에 그 분의 본성과 존재성을 다 쏟아놓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러한 기쁨은 창조는 선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선하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적절한 이름이며, 이런 선하심이 가득한 세계는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데에서 나타난다. 에크하르트는 다음의 구절을 주석하면서 기뻐할 것을 요구한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이사야 49:13).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한다. 그의 신학은 복의 신학이다.¹⁸⁾

다음으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고귀함을 말한다. ‘사람은 숭고하다’, ‘사람은 위대하다’라는 설교를 통해 이를 강조한다. 인간의 위대성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데서 찾고 있다.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 분 자신을 본떠서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상을 본떠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선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성들은 그 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본떠서 특별한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분 안에 있는 상을 본뜬은 물론이고, 그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본떠서 지어졌습니다. 영혼은 실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영혼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존재, 그분의 흘러나옴과 동시에 안에 머무름, 그분이 거주하시는 터전을 본떠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¹⁹⁾

인간은 이러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는 원죄의 사상을 전통적 신학자와는 다르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신적 본성을 하나님의 씨처럼 고귀하게 간주한다. 만일 그것을 마치 농부처럼 씨앗을 경작한다면, 하나님의 씨앗인 그것은 무성하게 자라, 하나님을 자랄 것이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씨앗처럼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인간의 고귀함을 하나님으로 자라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그가 원죄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인간의 잠재성을 억압한다거나 죄를 부정하는 데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²⁰⁾ 이런 의미에서 예수가 오신 것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함보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기 위함임을 알게 된다. 부름 자체는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의 영성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는 우리가 위대성과 신성으로 돌아가도록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

18) 위의 책, 233쪽.

19) 위의 책, 160쪽.

20) Matthew Fox, 앞의 글, 295쪽.

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신다.

2. 둘째 길: 비움과 채움, 초탈과 초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한 가지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첫째 길이 창조계안에서 외적 방법에 의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면 둘째 길은 내적 방법 즉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길이 빛의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긍정의 길(via positiva)이라면 두 번째 길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숨어 있으며, 캄캄한 무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부정의 길(via negativa)이다. 그러나 이 부정의 길은 의미와는 상관없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다.²¹⁾

아버지는 신성의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안에 머무르는 영원한 말씀—그리스도—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안에 머물러 있고, 신성과 모든 피조물의 목적 지이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받는 것은 모두 이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출발점은 최종 목적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받은 모든 것은 이 최종 목적지에서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종점은 어둠이거나, 숨어 있어서 알 수 없는 신성입니다. 숨어 있어서 알 수 없는 신성은 빛나되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는(요1:15) 빛입니다. ... 하나님은 영혼의 터에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터와 영혼의 터는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여러분을 점점 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²²⁾

폭스는 이러한 부정의 길이 또 다른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피조물은 제한되어 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에 비해 비할 수 없는 만큼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지금까지의 피조물은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이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것으로서, ‘존재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이를 설명해준다. 즉 존재는 끊임없이 창조주로부터 온다. 피조물이 아무리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창조자에게 의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여자의 입장에서 피수여자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무이다. 다시 말해 창조된 것들은 그 근본에서 볼 때 아무 것도 아니다.²³⁾

21) Matthew Fox, 앞의 책, 251쪽.

22) 위의 책, 257쪽.

23) Matthew Fox, 앞의 글, 297-298쪽.

이러한 주장을 통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은총으로서의 피조물과 무로서의 피조물 사이의 변증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있음과 없음, 존재와 비존재,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변증법을 통해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비우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 두 경험은 동시에 일어나고 어느 하나를 배제함이 없이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그는 무성은 무시되거나 망각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되고 탐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의 탐구는 그 자체로 심오하며 종말론적 계시를 드러낸다고 말한다. 즉 우리의 의존적인 존재의 심연에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낳으신다는 것이며, 창조주라 불리는 하나님 너머에는 모든 이름들의 부정하신 신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 탐구는 의지나 지성으로 되지 않고 힘의 포기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즉 부정의 길로써, 사물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버리는 길이다. 이러한 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성과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자아와 만나지 못하는 한, 그들은 결코 그 신성과 연결될 수 없다. 우리는 있음과 없음에 무지하거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는 과정을 초탈 혹은 버림이나 포기라고 한다.

이러한 에크하르트의 부정의 길은 존재와 무의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해야 한다. 영혼의 밑바닥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열망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열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열망의 과정이나 역동성 자체가 그 큰 가능성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지도 일하지도 못하는 것이므로 욕망을 멈추라고 한다.

이러한 초탈의 과정을 겪으면 초연이 뒤따라온다. 초연은 채워짐이다. 즉 초탈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심이다. 이는 초탈의 목표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이 가난한자가 초탈을 통해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면 인간이 바라는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갖고자 하는 욕구가 멈춘 내적 가난이 소유한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영혼이 일치되며, 가장 심오한 가난을 경험한다. 이렇듯 초탈은 지배, 집착, 움켜짐, 축적 등과 반대되며, 죽음 이전의 영생이며, 무아경이며, 생명이며,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이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비움이다. 그러나 전제할 것은 이러한 에크하르트의 부정의 길은 은총으로 가득한 창조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3. 셋째 길: 돌파와 탄생

둘째 길은 버림과 그대로 됨의 과정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의 정점은 고요함이다. 이 고요함은 신성한 것이다. 이 고요함을 통해 하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첫째 길과 둘째 길 즉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을 여행할 때 마음에 그리는 것이 바로 탄생이다. 이는 셋째 길인 창조의 길을 말한다. 그는 새로 탄생함을 지칭하기 위해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다. 돌파(breakthrough)라는 말이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그의 설교15번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한 위대한 대가는 돌파가 흘러나옴보다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왔을 때 만물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나는 돌파 속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하나님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돌파 속에서 나는 모든 피조물을 능가합니다. 돌파 속에서 나는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있던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앞으로 영원히 있을 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추진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모든 활동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추진력 속에서만큼은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돌파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채기 때문입니다.²⁴⁾

이 돌파는 신성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 이러한 때 행복을 경험한다. 이는 다른 길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깨어남과 일어남의 과정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적 자아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물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물을 돌파하는 법, 사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법, 하나님을 강력한 분으로 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깨뜨림의 이미지를 통해 열매의 핵 혹은 사물의 핵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돌파는 신성과 합일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일어난다. 돌파야말로 우리가 변모하는 신성한 순간이다. 돌파 속에서 우리는 신성 속으로 침투한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신성 속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피조물과 창조주를 넘어 이름 없는 하나님, 신성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신비의 바탕이 되는 신비를 건드리게 된다. 이로서 우리는 신성하게 태어난다. 그러므로 돌파는 우리 자신의 신적인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돌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돌파는 탄생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돌파를 통한 탄생을 세 가지로 말한다. 즉 하나님 아들의 탄생, 말씀의 탄생, 그리고 단순한 하나님의 탄생이다. 이 탄생은 그의 영성사상의 핵심주제이기도

24) Matthew Fox, 앞의 책, 326쪽.

하다.²⁵⁾ 비움과 신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 오신 목적이다. 하나님은 되풀이하여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못지않은 독생자로 만드신다.²⁶⁾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다. 돌파를 통해 우리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낳는다는 것은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낳는 신적 과정의 한부분임을 말해준다. 즉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영혼 속에 낳으시며, 영혼을 아들로써 낳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그는 하나님을 생명을 낳는 생명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삼위일체 그 자체로 들어간 다음 피조물들에게로 흘러넘치는 과정으로 본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닮고 너무 많은 은총을 받아 돌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본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는 성서의 한구절인 야고보서 1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설명한다. 즉 창조주는 예술가이며, 아들은 예술작품이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예술작품은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적인 운명과 영광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을 낳은 것이라고 말한다.²⁸⁾

폭스는 이러한 사상을 부연 설명한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과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낳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은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내향적 묵상(바깥에서 주어진 상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외향적인 묵상(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표현하는 것)이 결합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창조행위는 존재 행위에서 흘러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4. 넷째 길: 자비와 사회정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원론과 정숙주의를 회피한다. 그는 영적 여정의 목표는 관상이 아니라 자비라고 말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세 가지 길에서 경험한 것들이 넷째 길에서 어우러진 것이다. 자비는 창조계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다. 자비는 또한 새로운 창조자인 우리가 다른 이에게 주어야 할 최후의 복이다.

25) 길희성, 위의 책, 219쪽.

26) Matthew Fox, 앞의 글, 313쪽.

27) 위의 글, 314쪽.

28) Matthew Fox, 앞의 책, 584쪽.

그레고리우스는 ‘등불, 곧 질그릇 속에 놓인 빛은 우리의 육신을 입은 신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 빛이자 가장 깊은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떠오르는 태양이신 주님은 자비를 통해, 자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맨 처음부터 자신의 본성에 맞게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이 점에서 그분은 모든 이에게 넉넉히 은혜를 베푸시는(롬10:12) 분이십니다—해를 입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으며, 두드려 맞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해를 입으시고 두드려 맞으셨습니다. … 그분은 이런 식으로 자비를 행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가서 당신도 그렇게 행하시오(눅10:37)”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분께서 몸소 행동으로 가르치셨고 이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오. 그리하면 사람들이여러분의 품에 후한 되를 안겨 줄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자비의 원형을 제시하셨습니다.²⁹⁾

그는 셋째 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낳아야 하는데 은혜 가운데 가장 신적인 것이 바로 자비라고 말한다. 그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자비가 원수를 물리쳐 이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신성의 옷으로 감싸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비가 정의를 통해 사람을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천상의 복(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일의 최고는 자비이며, 이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 피조물로 복귀하는 것과 인간의 정치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는 영성은 세상과의 도피가 아니라 피조물을 맞보는 방식을 재창조하는 것이다.³⁰⁾ 그의 삶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대학교수로, 수도원의 행정가로, 설교가로, 성직자들의 지도자로 살면서 베푸는 삶을 실천하였다. 폭스는 그의 자비의 삶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구현한 것을 평가한다. 먼저는 세계변형으로서의 자비이고, 다음으로는 사회정의의 측면에서의 자비이다.³¹⁾ 우선 그는 세계변형으로서의 자비를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충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세계임을 말한다.

우리는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사랑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종교적 황홀경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과 같은 엄청난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데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을 필요로 하는 병든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나는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황홀경에서 나와 그 갈급한 사람을 이제까지보다도 더욱 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³²⁾

29) 위의 책, 669쪽.

30) Matthew Fox, 앞의 글, 317쪽.

31) 위의 글, 319-326쪽.

32) 위의 글, 319쪽 재인용.

그는 영적인 일보다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강조하였으며, 이웃사랑은 도덕적 명령보다는 비움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의식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았다. 이 의식은 모든 사물은 평등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식인데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라고 말한다. 자비심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는 자비와 구원과의 관계를 알려준다. 그리스도는 자비의 의미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의미도 가르쳤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은 복덩이인 창조계에 들어가서 창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즉 자비를 배품으로써 천상의 보화를 사서 창조의 작업에 쓴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원일 것이라고 말한다. 창조 작업은 동물과 대지, 물과 공기, 식물과 음악, 아이와 어른을 포함한 우리의 자비의 중심이다.³³⁾

둘째는 사회정의의 측면에서의 자비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데카르트처럼 정의와 자비를 동일시했다. 에크하르트는 불의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는 ‘자비가 곧 정의’라고 말한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비의 아들이며, 정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난 사람들도 정의의 자녀라고 말한다.

의로운 사람은 정의의 열매이자 정의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모습은 다르지만 본성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요10:30)라고 했으니 우리가 본성면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는 의로운 사람을 낳지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정의와 의로운 사람이 하나이며, 이들의 본성이 같다면, 의로운 사람이야말로 정의와 동격이라고 하겠습니까.³⁴⁾

그는 구원은 사적이나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공적이며 관계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잘 나타났다고 말한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나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형제요 공동상속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형제인 것처럼 행동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라이 임하옵시며’의 내용은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는 자비가 어떻게 정의로 이끌어가는 지 알려준다고 말한다.³⁵⁾ 다시 말해 그는 자비는 감상적이 아니라 정의를 통해 빵을 나누는 문제이며, 소유욕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즉 정의는 이웃에게 속한 것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이웃을 위해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³⁶⁾

그는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사회적 불의를 무시하지 않고, 설교하면서 고발

33) Matthew Fox, 앞의 책, 629-630쪽.

34) 위의 책, 632쪽에서 재인용.

35) 위의 책, 714-726쪽.

36) Matthew Fox, 앞의 글, 323쪽.

하였다. 이에 대해 가난한 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이처럼 자비를 이론적으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제로 정의를 통한 자비를 실천하였다.

IV. 에크하르트의 생태사상에 의한 생태교육

현존의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자연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실천이 필요하다. 생태계에 올바른 이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기존의 자연에 대한 물이해와 접근을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모색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것과³⁷⁾ 자연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생태학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⁸⁾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하나 혹은 한 가족으로 대하는 종교적 전통을 통해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³⁹⁾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서 에크하르트가 주창하고 폭스가 이를 발전적으로 강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그는 에크하르트의 사상 중에서 핵심적인 사상을 창조영성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창조영성은 오늘날 생태사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한다. 그는 이러한 창조영성은 본래 있었던 것이지만 지난 3세기 동안 잃어버린 전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⁴⁰⁾

이러한 폭스에 의해 재발견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창조영성과 생태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폭스는 창조영성에 대한 교육은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즉 창조영성은 땅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땅을 파괴하지 않게 한다고 본다.⁴¹⁾ 그리고 창조영성은 인간의 우뇌를 발달시키는 심미적 교육을 하게 함으로서 교육의 변모를 가져오고, 치유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²⁾

생태교육이 “전 지구와 우주의 생태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여 생태의 내용을 가르쳐서 깨우치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 역시 그 자체가 생태적 관점이 전제되어 가르치는 교육을 말하는 것”⁴³⁾이라고 할 때 에크하르트의 창조영성사상은 생태교육에 부합되는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37) 조용개, 『생태학적 삶을 위한 환경윤리와 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269-290쪽.

38)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1998), 65-80쪽.

39) Roger S. Gottlieb, 같은 책.

40) Matthew Fox, *Original Blessing*, 황종렬 옮김, 『원복』 (서울: 분도출판사, 2004), 7-11쪽.

41) 위의 책, 12쪽.

42) 위의 책, 12-30쪽.

43) 진창영, “동학사상의 교육내용과 생태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4(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358쪽.

1. 창조계(자연계): 생태계를 위한 환대교육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창조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그는 창조계를 ‘창조적인 은총’, 혹은 ‘창조의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람이 자연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을 요청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자연계를 감싸는 원의 일부이며, 인간은 자연계를 억누르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한다. 피조물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피조물에 깃들여 있는 신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⁴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모든 피조물에게 골고루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저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고루고루 자신의 존재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더할 나위없는 가르침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들이 인척관계나 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와 더 가까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만물을 대할 때와 똑같은 우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고르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정답게 대해야 합니다.⁴⁵⁾

이러한 그의 창조계에 대한 사랑을 폭스는 환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자연계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하게 하기위한 것이 바로 환대라고 본다.⁴⁶⁾ 환대는 우주적 환대로서 첫째 길의 완성으로 여긴다.

창조주는 관대한 주인으로서 풍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창조주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 이후 오랫동안 잔치를 벌여 오셨다. ... 이것은 인간의 행성을 작동시키는 잔치다. 이 잔치는 우리는 창조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엿한 손님으로 처신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동한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매우 좋다’고 선언하셨고, 우리도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 우리 상에 차려진 다음 요소들을 상기해보자: 자연, 우정, 사고, 성, 대화와 자동차수리에서 춤과 오페라까지 갖가지 기예, 선한 사업, 경쟁 아닌 스포츠... 그렇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창조계의 갖가지 선물과 축복들로 반겨 맞아주시는 좋은 주인이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⁴⁷⁾

하나님은 환대하는 주체일뿐더러 손님역할도 하신다.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환대를 베풀고, 손님으로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신다. 예수도 지상에서 주인노릇과 손님노릇을 번갈

44) Matthew Fox,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148-149쪽.

45) 위의 책, 144쪽.

46) Matthew Fox, 『원복』, 120쪽.

47) 위의 책, 121쪽.

아 하셨다. 잔치초대에 오지 않은 손님에 대해 탄식하셨고, 직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셨다. 성서에는 손님으로서 자연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많이 있다.

이를 통해 환대교육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우리가 손님노릇(고맙게 받아들임)만 해서도 모자라고, 주인노릇(창조에 동참)만으로도 부족하다. 우리는 손님과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자연만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연을 나누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하다.

환대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파커 팔머(Parker Palmer) 교수는 배움의 공간에는 환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배움의 공간은 고통의 장소인데 환대는 우리가 서로를, 서로의 갈등을, 서로의 새로운 생각을 개방적이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⁴⁸⁾ 이를 생태계에 적용하면, 지구에서 삶의 공간을 함께 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대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 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의 형상에 대한 두 가지 이해와 결부된다. 첫째는 주인역할을 잘하기 위함이다. 신의 형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자연에 대한 계속적인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왕적 기능을 수행할 때 가져야 할 것은 왕적 권위를 학정이나 착취 등 오용하는 대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봉사의 측면에서 사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한다.⁴⁹⁾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자연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손님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신의 형상을 어떤 실체적 존재보다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을 자연에 대한 청지기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의 역할과 기능은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 사명이며,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봉사와 보살핌을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⁵⁰⁾ 린 화이트(Lynn White)의 지적대로 자칫하면 이러한 개념은 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쉽다. 그러므로 환대의 교육이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회복하면 정말 자연계는 낯선 곳이 아니라 환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회복될 것이다.

2. 비움과 채움: 삶의 단순함을 체험하는 교육

그는 비움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비움의 화신이다. 이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48)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옮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2), 113쪽.

49) Robert Murray, *The Cosmic Covenant* (NJ, Tigris, 2007), p.98.

50) Michael S. Northcott, *The Environment &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28-131.

게는 생소하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을 힘들다. 그러나 고통을 끌어안아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폭스는 사랑은 대가없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통은 끌어안으면 영적 삶의 여정의 연료가 되며, 힘을 가져다준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고통의 유익을 피력한다.⁵¹⁾ 첫째는 고통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는 고통은 우리가 기쁨을 이해하고 비판하도록 도와준다. 셋째는 고통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강인하게 해준다. 넷째는 고통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세계에 열어놓게 한다.

둘째 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생태계의 위기는 고통을 줄이고,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다가 생긴 것들이다. 기후온난화, 물 오염, 흙 오염 등 모두 인간의 욕심을 채우다가 생겨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비움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자유의 보존을 위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카푸토(John D. Caputo)는 말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해한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자기-사랑을 여윈 사람일 뿐 아니라 마르다처럼 사물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두는 사람이기도 하다.⁵²⁾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단순한 삶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경제 생활에서의 단순한 삶을 통해 황금만능주의와 소비중심주의로 물들어가는 현대인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위해 자발적 가난과 계획된 소비생활을 권하고 있다.⁵³⁾ 미 부통령 출신인 엘 고어(El Gore)는 기후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이 삶의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⁵⁴⁾ 이러한 삶의 단순성을 추구하는 운동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국민대학교에서는 녹색캠퍼스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차 없는 캠퍼스, 숲과 함께 하는 캠퍼스, 물을 사용하는 캠퍼스, 재활용하는 캠퍼스 등을 추구하는 운동이다.⁵⁵⁾ 대학생들이 누구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계층이지만 작은 불편을 통해 보다 자연친화적인 캠퍼스를 만들어 가면, 비록 문명의 이기들을 완전히 멀리할 수 없겠지만 자연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의 건강과 캠퍼스의 분위기가 더욱 활기찰 것으로 기대가 된다.

51) Matthew Fox, 앞의 책, 151-157쪽.

52) Matthew Fox,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335쪽.

53) Richard J. Foster, *Freedom of Simplicity*, 윤종석 옮김, 『심플라이프』, (서울: 규장, 2003), 160-182쪽.

54) El Gore, *An Inconvenient Truth*, 김명남 옮김, 『불편한 진실』 (서울: 좋은 생각, 2006), 305-318쪽.

55) 녹색캠퍼스운영위원회 편, 『녹색캠퍼스를 꿈꾸며』 (서울: 이크, 2004), 8-54쪽.

3. 돌파와 탄생: 명상적 예술을 통한 생태 체험 교육

셋째 길은 창조와 공허를 모두 받아들여 제3의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성은 신적 출산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예술적 창조성을 말한다. 그러나 이 예술적 창조성은 특별한 예술가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이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폭스는 이를 명상적 예술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빙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gen, 12세기 생태사상가)의 체험을 예로 들고 있다.

내가 42세 되었을 때, 큰 섬광이 하늘을 열고 쏟아내려 온 머리와 온 가슴과 온 마음에 불을 놓았다. 갑자기 나는 책들의 의미를 식별하며 맛보고 있었다. 시편, 복음서, 다른 신앙 서적들, ... 동시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골골하면서도 글 쓰는 일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이렇게 결심하자, 여러 책에 대한 깊고 심오한 설명이 덮쳐왔다. 나는 병상에서 일어날 힘을 받았고, 그 힘으로 내리 십년을 고스란히 써서 이 일을 끝까지 해냈다.⁵⁶⁾

폭스는 이러한 명상적 예술을 실천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명상적 예술교육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웅기를 만들기 체험교육’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웅기장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웅기장이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는 자기표현에 대한 판단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림을 잘못 그린다’, ‘노래는 잘 못한다’ 등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은 작품을 만든 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것들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⁵⁷⁾

그는 그의 연구소에서 이러한 명상적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그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그림그리기’, ‘웅기 만들기’ 등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치유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는 37세 된 어머니이며 주부의 예를 든다. 그는 ‘웅기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경험이 결혼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즉 그녀는 첫날 진흙을 만진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살갓을 만지게 되었는데 마치 처음 만지는 것처럼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흙이 결혼상담자 찾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더 재미있다고 말한다. 폭스는 이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는 우리에게 치유하는 예술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오락으로 전락시키고 예술가에게만 그런 일을 하라고 한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⁵⁸⁾ 그는 그가 실시한 그림그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명상적 예술하나에 셋째 길뿐 아니라 첫째 길과 둘째 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56) Matthew Fox, 앞의 책, 205쪽.

57) 위의 책, 209쪽.

58) 위의 책, 210쪽.

문득 나는 창조계의 사물들에 직면합니다. 그 선과 색과 공간을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말하기 시작하고... 나는 창조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어울려 표현하는 선과 색과 모양을 형태화하고자 노력합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사물들이 결합합니다. 나는 이것들에게 나의 두려움을, 이것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나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잊게 됩니다. 오로지 창조계의 이 아름다운 부분을 그리기만을 열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을 더 분명히 의식하게 되고... 전에 몰랐던 평온을 느낍니다.⁵⁹⁾

이러한 명상적 예술을 체험하는 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를 직접 답사하는 일, 자연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 등이다. 폭스는 이러한 명상적 예술체험은 우리 안과 둘레의 우주에 참으로 귀 기울이고, 우리 세계와 세계들의 지속적 우주발생을 낳고, 우리고 하여금 청춘과 동심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말한다.⁶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배우는 것이고, 거듭 시작하는 것이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4. 자비와 사회정의: 생명존중과 생태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넷째 길은 자비와 사회정의를 행하는 길이다. 에크하르트는 말한 이 사상은 생태교육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자비는 모든 피조물을 상호의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비는 억눌리고, 약한 피조물에게 향함으로서 평화를 지향하게 한다. 폭스는 자비는 상호의존이며, 은총에 의한 것이며, 행업이 아님을 말한다. 그는 자비는 상호의존성이 깨어남과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것이 축제거행과 정의구현이라고 말한다.

먼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 즉 생명존중의 생태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폭스는 피조물을 사랑하며, 함께 놀이를 즐기는 것이며,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에는 춤추기, 책꽂이 만들기, 시 쓰기, 사상을 검토하기 등을 들고 있다.⁶¹⁾ 이러한 생명존중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오계의 수행방법으로서의 생명존중의 생태교육적 의미를 추구한다.⁶²⁾ 맥페이그(Sally Mcfaige)는 생명존중의 교육을 위해 야생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반드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도시의 작은 공원이라도 방문하여 생태를 만남으로 육화된 지식을 얻는 것은 살아있는 세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이 그에 속한 것이

59) 위의 책, 212쪽.

60) 위의 책, 215쪽.

61) 위의 책, 308쪽.

62) 김용표, “불교 오계의 지구윤리적 지평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38-41쪽.

라는 의식을 알려주며, 상호관계성에 대한 감각을 살려준다고 말한다.⁶³⁾

다음으로 정의를 위한 생태평화교육은 억눌린 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육이다. 폭스는 이러한 교육을 시행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이번 여름에 1,500명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모였던 워싱턴 소포케인 테케퀴타 회의가 기억난다. ... 인디언 한 여자가 일어나 말했다. “이 한 시간이 나의 40년 생애를 치유했어요. 나는 늘 원주민 길과 그리스도교 길 사이의 틈새를 안고 살아 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 늘 원주민과 어거스틴 길 사이에 있네요.”⁶⁴⁾

그는 타락/구원중심 영성이 아닌 창조중심 영성이 아메리카 원주민, 제3세계, 여성, 흑인, 동성애자, 장애인의 영성을 회복시킨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억눌린 자들이 창조영성으로 인해 그들이 회복될 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그러므로 생태교육은 우선 억눌린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계보존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억눌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자연에 대한 억압과 파괴가 쉽게 일어나서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는 교육은 성례전이다. 성례전에서 사용하는 피조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의 기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전체의 부분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⁶⁵⁾ 이런 방법들은 모든 인간관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게 된다.

V. 나오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크하르트는 중세기의 사람이었지만 창조영성의 사상을 가지고 당대뿐 아니라 현대의 사상의 많은 영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창조영성은 오늘날의 생태사상의 전통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튜 폭스 등에 의해서 새롭게 그의 사상적 영향력을 부각시키며 주목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창조적 영성사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를 네 가지의 길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창조계로 나가는 길이며, 둘째는 비움과 채움 혹은 초탈과 초연의 길이며, 셋째는 돌파와 탄생의 길이며, 넷째는 자비와 정의의 길이다. 이러한 사상적 원리들은 생태교육에 잘 접목이 됨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생태위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63) 박성용, 『기독교와 불교의 생태평화화』 (서울: 다산글방, 2007), 205-206쪽.

64) Matthew Fox, 위의 책, 294쪽.

65) 박성용, 앞의 책, 193쪽.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에크하르트에게서 찾게 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인 일이라 하겠다.

생태교육이 무엇보다 창조계 즉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됨을 통해 생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임을 인식할 때, 오늘날과 같은 생태위기를 당하지 않던 시대에 살면서 그가 역설한 사상은 오늘날의 생태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를 통해 주창된 사상은 창조성회복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위해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단순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교육, 명상적 예술을 통한 생태적 체험과 치유를 하게 하는 교육, 그리고 생명존중과 생태학적 평화를 진작시키는 교육으로 접맥되는 데 충분하였고, 실제로 폭스가 그의 사상을 집중 연구하여 실제로 시행함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그의 사상이 학문적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실제적인 적용이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앞으로는 지구 전역에서 이러한 생태적 전통을 잘 이어받아 교육현장 즉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참고문헌

- 길희성.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성 사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8.
- 김용표. 「불교 오계의 지구윤리적 지평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녹색캠퍼스운영위원회 편. 『녹색캠퍼스를 꿈꾸며』. 서울: 이크. 2004.
- 박성용. 『기독교와 불교의 생태평화화』. 서울: 다산글방. 2007.
-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1998.
- 송명규. 『현대생태사상의 이해』. 서울: 따님. 2008.
- 예철해. 「불교생태학의 주요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생태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2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정달용. 『중세독일 신비사상』. 서울: 분도출판사. 2007.
- 조용개. 『생태학적 삶을 위한 환경윤리와 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 진창영. 「동학사상의 교육내용과 생태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Foster, Richard J., *Freedom of Simplicity*. 윤종석 옮김. 『심플라이프』. 서울: 규장. 2003.
- Fox, Matthew. *Breakthrough : Meister Eckhart's Creation Spirituality*. New York: Doubleday. 1980.
- _____. *reation: The Earth-Honoring Sprituality of Meister Eckhart*. 김순현 옮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분도출판사. 2006.
- _____. 이민재 옮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창조영성」. 『생태신학강의』.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6.
- _____. *Original Blessing*. 황종렬 옮김. 『원복』. 서울: 분도출판사. 2004.
- Gore, El. *An Inconvenient Truth*. 김명남 옮김. 『불편한 진실』. 서울: 좋은 생각. 2006.
- Gottlieb, Roger S. edited.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n and Ec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Henerr, I. C..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Christlichen Denkens*. 송기득 역. 『그리스도교사상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McGinn, Bernard. *Meist Eckhart: Teacher and Preacher*. N.Y.: Paulist Press. 1986.
- Murray, Robert. *The Cosmic Covenant*. NJ : Tigris. 2007.
- Northcott, Michael S. *The Environment & Christian Eth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Palmer, Parker.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옮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2.
- Wehr, Gerhard. *Meister Eckhart*. 이부현 옮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서울: 안티쿠스. 2009.

원고접수: 2010년 5월 1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5일

연구자소개: 손성수

- ① 전공: 역사신학 / 소속: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 ② 관심영역: 역사, 세계관, 생태학
 - ③ 주요논저: 삶의 진리로서 기독교이해, 종교와 생태학, 존 오웬의 영성이해, 기독교대학에서의 현대의 적용연구
 - ④ E-mail: sohns@hanmail.net
-

Abstract

A Study of Ecological Education on Meister Eckhart's Ecological Thought

Sohn, Sungsoo

Hyupsung University

For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he ecological crisis is already a matter of survival. How could we cope with it sagaciously? As we know, an ecological crisis is not only the result of certain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but also a moral and spiritual factors which will require religious understandings of ourselves as creatures of nature, embedded in life cycles and dependent on ecosystems. Thus, I think that ecological education contact with religion is one of methods to solve ecological problems.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thought of Meister Eckhart(1260-1329), spiritual and ecological theologian, and to apply in terms of the ecological education. Matthew Fox, studied his works, came up his ecological thought with the Four Paths of creation spirituality. The Four Paths tell us what matters. We are told in Path One that awe and delight matter, namely to experience God in the mystery of nature; in Path Two that darkness, suffering, and letting go matter, namely to know Him in the silence and emptying, in the pain and suffering; in Three Path that creativity and imagination matter, in other words, to co-create with God in our generativity; we trust our images enough to birth them and ride them into existence. And in Path Four that justice and celebration, which add up to compassion, matter.

The principles of Meister Eckhart's thoughts are useful for the ecological education. I suggest some opinions for ecological education that is possible in actual life; we have to teach people, treating hospitable for all natures, letting go our desires and experiencing pain of life, studying ecosystem through the contemplative method, and having a compassion for respect of life, justice and peace.

Key words : ecological crisis, ecological education, creation spirituality, transcendence, breakthrough, compassion